

Part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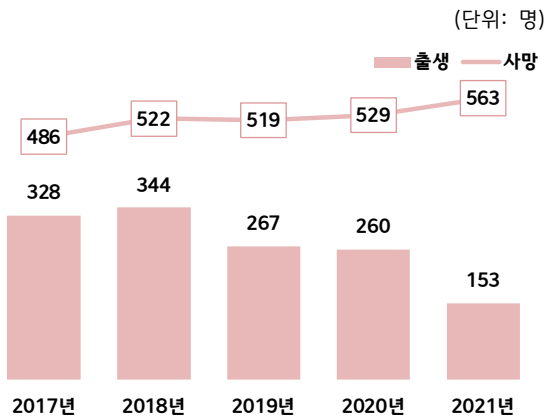
2022 주요결과 요약

- 1 인구 항목
- 2 공통 항목
- 3 전라남도 항목
- 4 장성 특성 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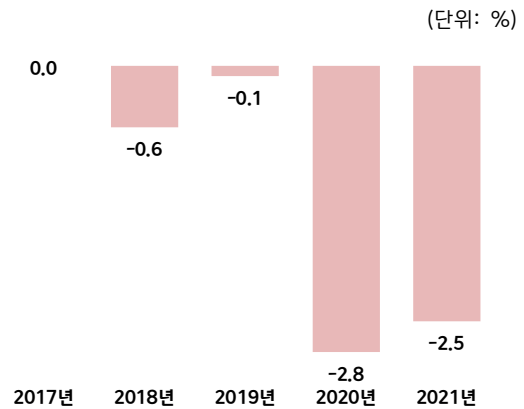
1. 인구 항목

- ▶ 2021년 장성군의 '주민등록인구'는 43,365명으로 전년(44,464명) 대비 1,099명 감소함
- ▶ 장성군의 '세대수'는 23,160세대로 전년 대비 18세대(0.1%) 감소함
- ▶ 장성군의 '남자 인구'는 22,206명으로 전년 대비 575명(2.5%) 감소, '여자 인구'는 21,159명으로 전년 대비 524명(2.4%) 감소함. 최근 5년 간 '남자 인구'의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, 2019년 '남자 인구'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후 유지되는 추세를 보임

« 출생 및 사망 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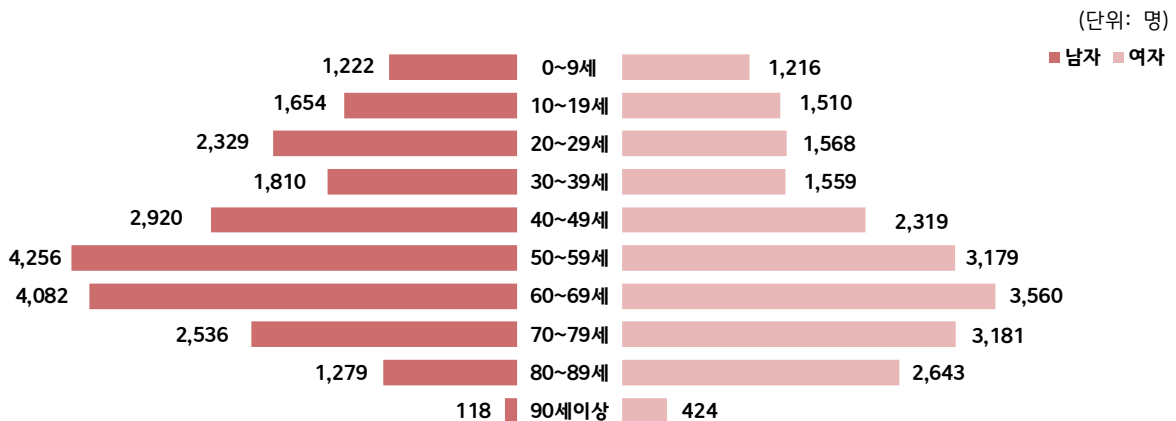


« 인구성장률 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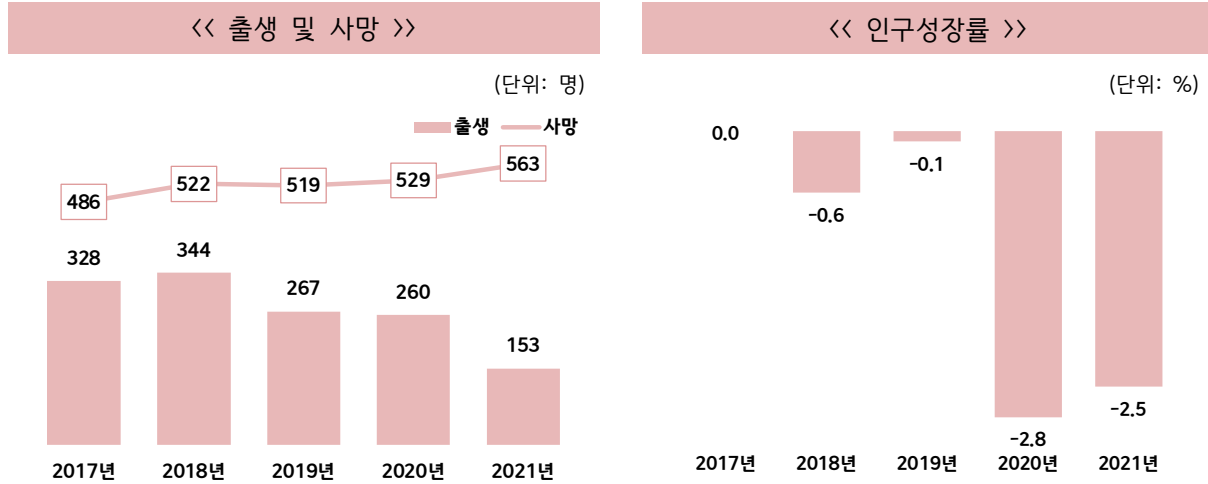


- ▶ 2021년 장성군 '인구'는 60~69세가 7,642명으로 장성군 전체 인구의 17.6%를 차지함
- ▶ 성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대는 '남자'의 경우 4,256명으로 전체 인구의 9.8%를 차지한 50~59세, '여자'의 경우 3,560명으로 전체 인구의 8.2%를 차지한 60~69세로 나타남. 60~69세까지의 '구성비'는 '남자'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'여자'의 '구성비'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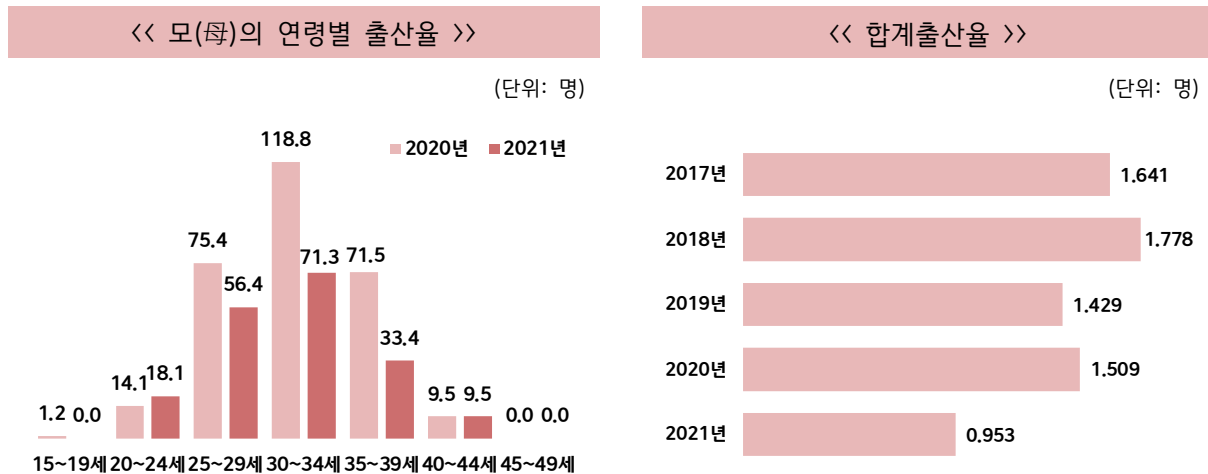
« 성별 인구 »



- ▶ 장성군의 출생 수는 153명, 사망 수는 563명으로 나타남. 장성군의 ‘출생 수’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, 2017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감소함
- ▶ 장성군 ‘자연증가율’은 -9.4%로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, 특히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. ‘인구성장률’은 -2.5%로 전년(-2.8%) 대비 0.3%p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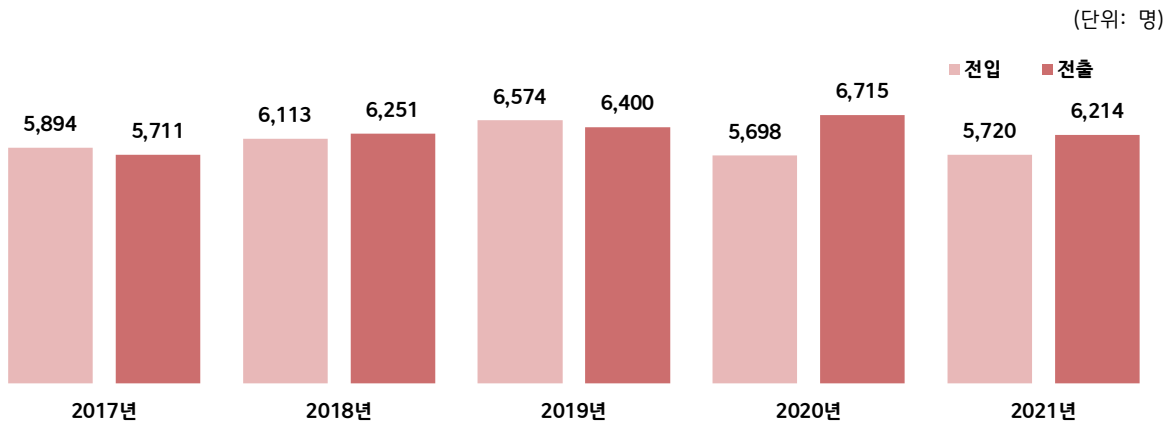


- ▶ 장성군의 ‘합계출산율’은 0.953명으로 나타났으며, 전년(1.509명) 대비 0.556명 감소함. ‘합계출산율’은 2017년(1.641명) 대비 0.68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▶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모(母)의 연령대는 ‘30~34세’로 천 명당 71.3명으로 나타남. 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은 대부분의 연령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



- ▶ 장성군의 '전입인구'는 5,720명으로 전년(5,698명) 대비 22명 증가함. '전출인구'는 6,214명으로 전년(6,715명) 대비 501명 감소함. '인구 순이동'은 -494명으로 전년(-1,017명) 대비 523명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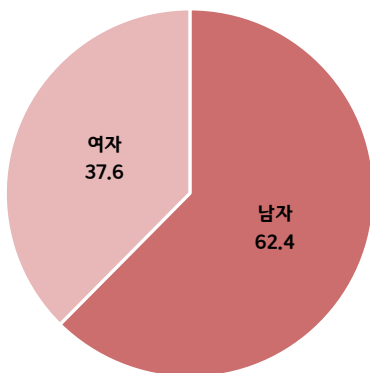
<< 전입 및 전출 인구 >>



- ▶ 장성군 외국인 인구는 923명으로 나타났으며, 성별 관계없이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장성군 '외국인 인구'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 국적은 '베트남(282명)'으로 '전체 외국인 인구'의 약 30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 베트남 국적 인구 외에 '필리핀(96명)', '중국(37명)', '일본(21명)'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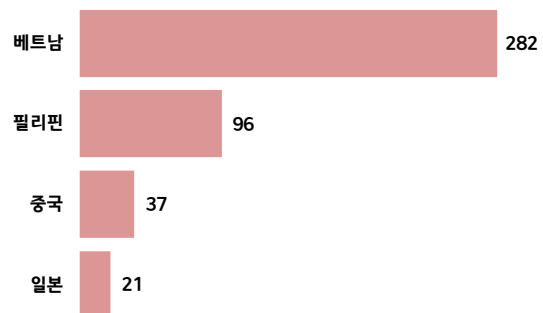
<< 성별 외국인 인구 >>

(단위: %)



<< 국적별 외국인 인구 >>

(단위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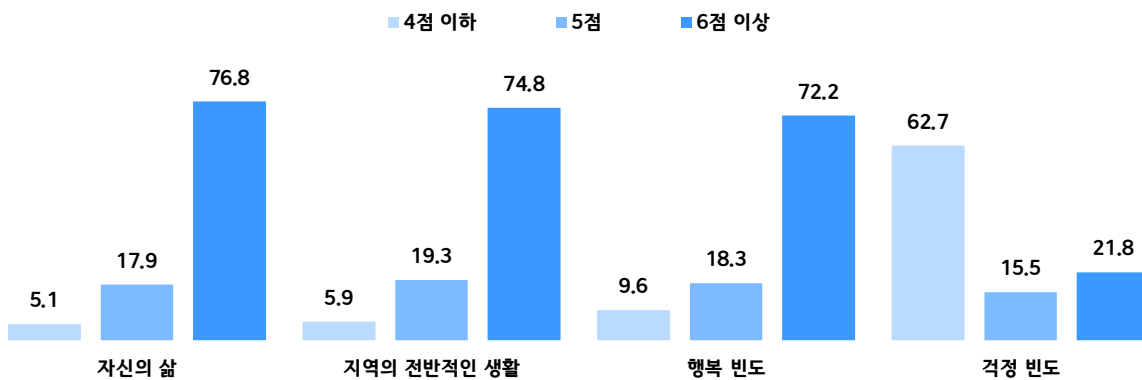
2.

공통 항목

- ▶ 군민의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.0점으로 2020년(6.3점) 대비 0.7점 증가함.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9점으로 전년(6.3점) 대비 0.6점 증가함
- ▶ 행복 빈도와 걱정 빈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평균 6.8점, 3.7점으로 행복 빈도는 전년(6.2점) 대비 증가, 걱정 빈도는 전년(4.3점) 대비 감소함

<< 삶에 대한 만족감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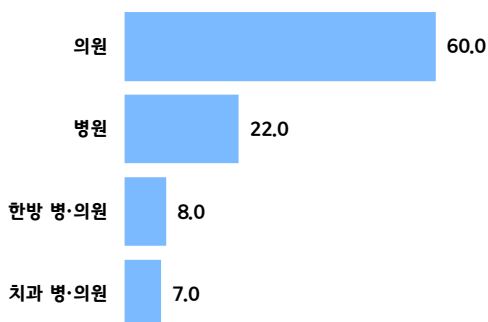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군민의 66.3%가 의료서비스에 '이용한 적 있다'라고 응답했으며, 장성군민 의료서비스 '월평균 이용 횟수'는 2.0회로 나타남. 이용한 의료기관은 '의원'이 60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'병원' 22.0%, '한방 병·의원' 8.0% 순으로 나타남
- ▶ 의료서비스에 '만족'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56.7%로, 2020년(42.0%) 대비 14.7%p 증가함. 의료서비스 '불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.8%로 나타남. 의료서비스에 '불만족'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'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'가 25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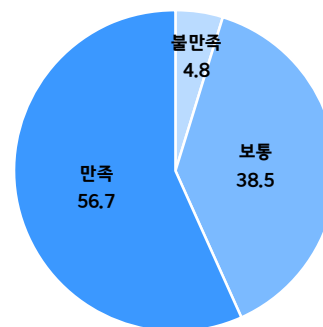
<< 이용 의료 기관 >>

(단위: %)



<< 의료서비스 만족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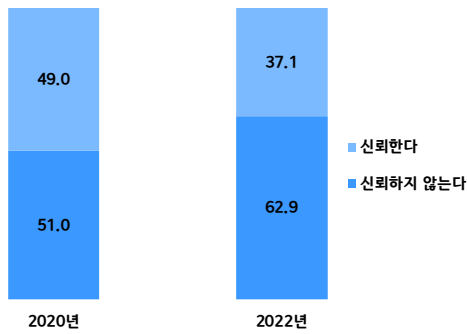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낯선 사람을 ‘신뢰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7.1%로 2020년(49.0%) 대비 11.9%p 감소함
- ▶ 낯선 사람을 ‘신뢰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서부권에서 54.8%로 가장 높았으며, 광주인근권(12.7%)대비 42.1%p 높게 나타남. 낯선 사람을 ‘신뢰한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37.6%, 여자 36.7%로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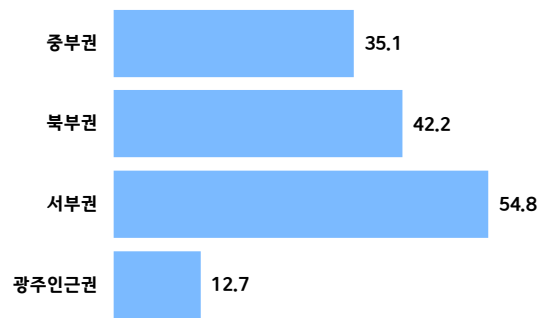
◀◀ 일반인에 대한 신뢰 ▶▶

(단위: %)



◀◀ 지역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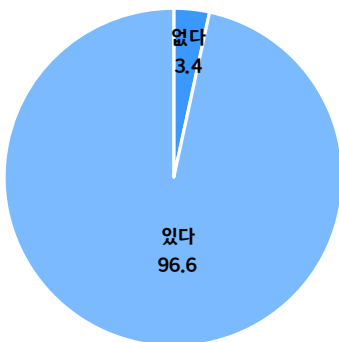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‘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96.6%로 2020년 (95.7%) 대비 0.9%p 증가함.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4.1명으로 2020년(4.3명) 대비 0.2명 감소함
- ▶ 연령별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‘있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15~29세가 99.3%로 가장 높고,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 연령별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~29세가 4.8명으로 가장 많고,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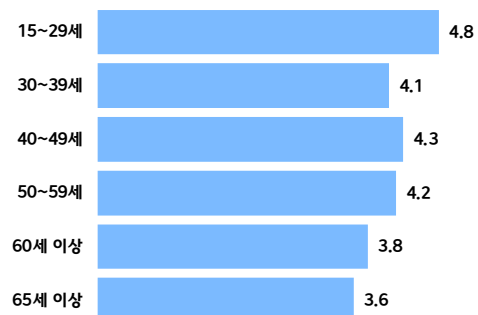
◀◀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▶▶

(단위: %)



◀◀ 연령별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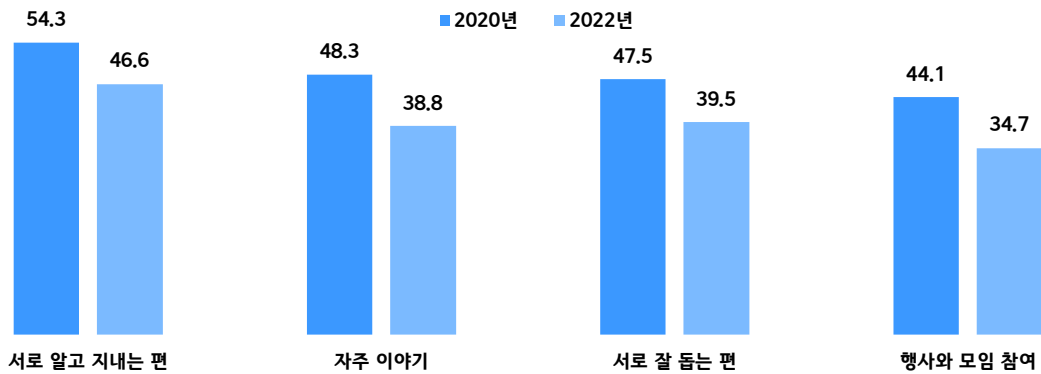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)



- ▶ 군민의 공동체 의식에서, 지역 사람들과 ‘서로 잘 알고 지낸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46.6%,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‘자주 이야기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8.8%,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‘잘 돕는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9.5%, 동네와 각종 행사 모임에 ‘적극적으로 참여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4.7%로 나타남
- ▶ 연령별로 지역 사람들과 ‘서로 잘 알고 지내지 않는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15~29세가 53.2%로 가장 높고, 모든 문항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공동체 의식에 대한 모든 문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소폭 높은 비율을 보임

« 공동체 의식 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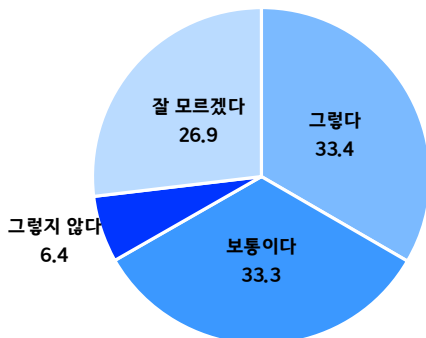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가 ‘잘 제공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3.4%로 2020년(23.0%) 대비 10.4%p 증가함
- ▶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‘잘 제공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4.9%로 2020년 (28.0%) 대비 6.9%p 증가함
- ▶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에 대해 ‘잘 모르겠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26.9%,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해 ‘잘 모르겠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25.1%로 각각 2020년(40.2%, 38.9%) 대비 감소하여 군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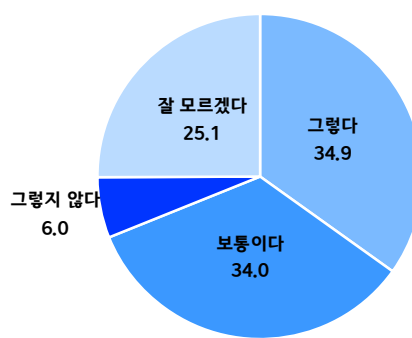
«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 »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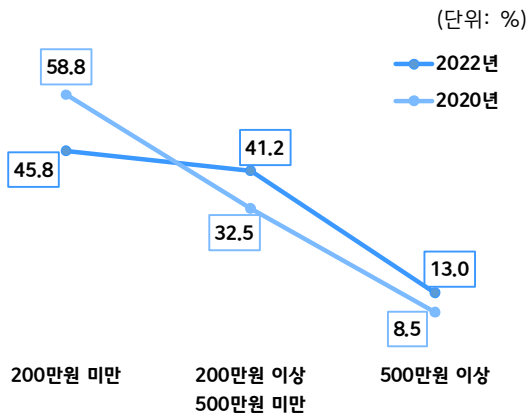
«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»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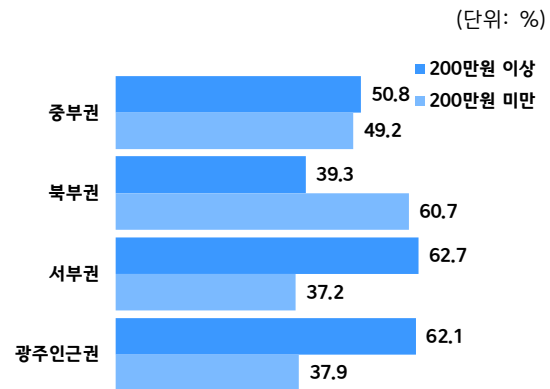


- ▶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이상'인 가구의 비율은 54.2%로, 2020년(41.0%) 대비 13.2%p 증가함. 월평균 소득이 '50만원 미만'인 가구의 비율은 12.0%로 2020년(22.0%) 대비 감소했으며, '500만원 이상'인 가구의 비율은 13.0%로 2020년(8.5%) 대비 4.5%p 증가함
- ▶ 지역별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이상'인 가구의 비율은 서부권에서 62.7%로 가장 높고, 광주인근권 62.1%, 중부권 50.8%, 북부권 39.3% 순으로 나타남. 성별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이상'인 가구의 비율은 남자 63.7%, 여자 29.1%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

« 가구 월평균 소득 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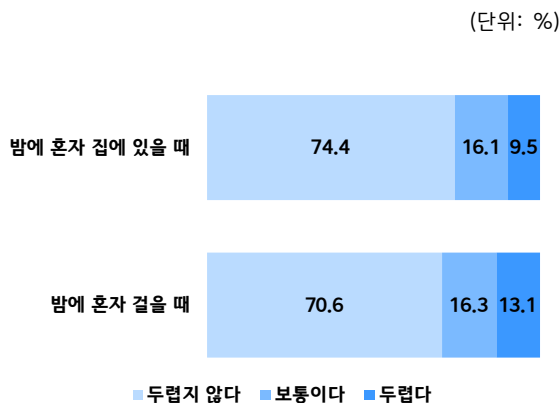


«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 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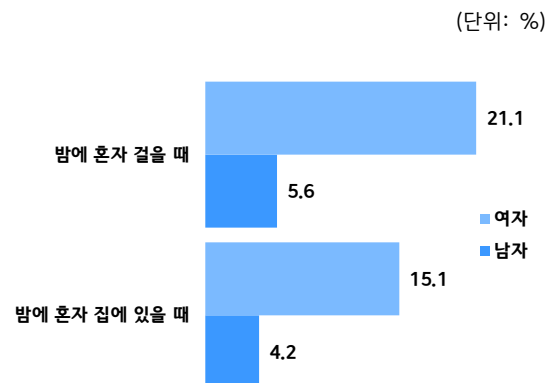


- ▶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해 '두렵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9.5%이며 '두렵지 않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74.4%로 나타남. 성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 4.2%, 여자 15.1%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
- ▶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범죄피해에 대해 '두렵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13.1%이며 '두렵지 않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70.6%로 나타남. 성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 5.6%, 여자 21.1%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

«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»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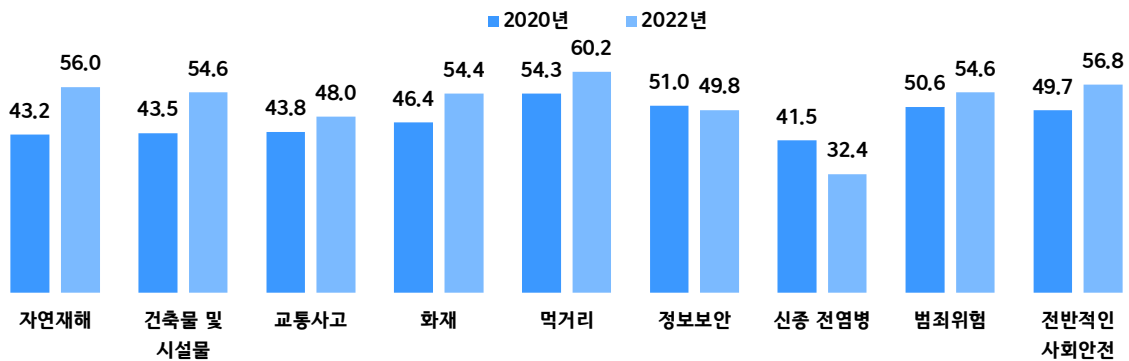
«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»



- ▶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군민이 '안전하다'라고 응답한 비율은 먹거리 영역이 60.2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, 대부분의 영역에서 '안전하다'라고 응답한 비율이 50.0%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. 신종 전염병 영역과 정보보안(컴퓨터 바이러스, 해킹 등)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군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함
- ▶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군민이 '불안하다'라고 응답한 비율은 신종 전염병 영역이 37.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교통사고 17.6%, 범죄위험 13.6% 순으로 나타났고, '불안하다'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영역은 먹거리(5.9%)로 나타남. 신종 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군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020년 대비 감소함

<<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(안전)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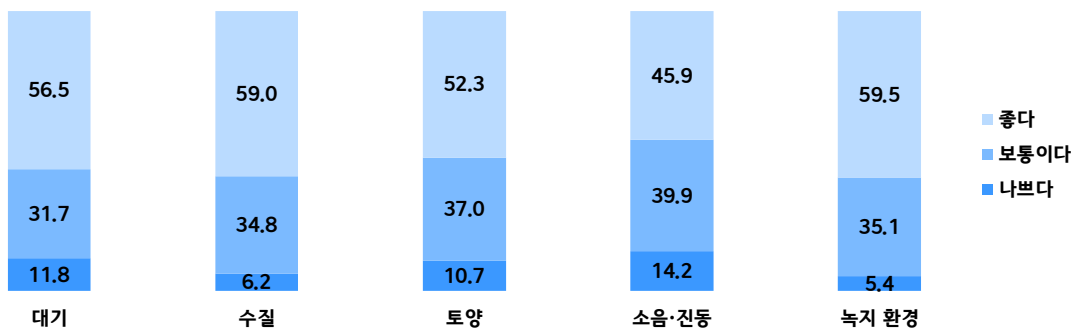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환경 체감도에 '좋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녹지 환경이 59.5%로 가장 높고, 수질 59.0%, 대기 56.5% 순으로 나타남
- ▶ 소음·진동에 대해 '좋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5.9%로 2020년(55.0%) 대비 9.1%p 감소함

<< 환경 체감도 >>

(단위: %)



공통 항목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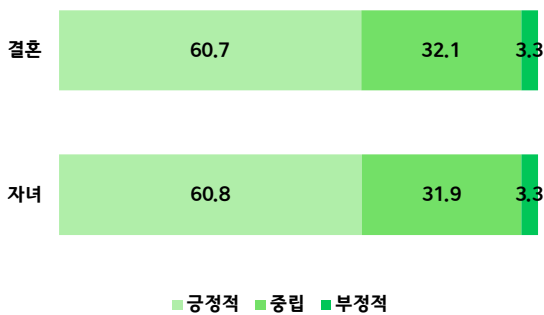
- ▶ 군민의 「자신의 삶」, 「지역의 전반적인 생활」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평균 7.0점, 6.9점으로 군민들은 **현재의 삶에 대체로 만족**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또한 2020년 대비 「자신의 삶」(6.3점→7.0점), 「지역의 전반적인 생활」(6.3점→6.9점)과 같은 종합적인 만족도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, 「행복 빈도」(6.2점→6.9점) 증가, 「걱정 빈도」(4.3점→3.7점)는 감소하여 **현재 군민들의 삶이 2020년에 비해 행복해졌다고 판단됨**
- ▶ 장성군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56.7%로 절반 이상의 군민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.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4.8%로 2020년(13.2%) 대비 8.4%p 감소하여 장성군의 의료서비스가 2020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 4명 중 1명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**의료시설의 낙후 및 미비**라고 응답함. 따라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, **지역 의료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의료시설 확충 및 낙후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**
- ▶ 지역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~29세의 연령대에서 53.2%로 가장 높고,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 따라서 **젊은 연령대의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지역민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** 있는 것으로 보임.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**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 허브 조성** 혹은 **지역 커뮤니티 활성화** 등을 통해, 청년층이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 ▶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54.2%로 2020년 대비 13.2%p 증가,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13.0%로 2020년 대비 4.5%p 증가함. 따라서 2020년 대비 **평균 가구소득 및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증가**한 것으로 나타남. 가구소득의 증가가 시장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군민의 소비를 촉진하는 **지역 화폐 활성화 및 적극적 홍보, 지역 중심산업 지원**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 ▶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신종 전염병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7.4%로 2020년(34.6%)과 유사한 비율을 보임. 즉, 현재까지도 **신종 전염병에 대해 군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** 있음. 따라서 **개인 방역에 대한 주의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, 체계적인 격리 분위기를 조성**하는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3. 전라남도 항목

- ▶ 결혼에 대한 견해는 ‘하는 것이 좋다’ 31.2%, ‘반드시 해야 한다’ 29.5%로 군민의 60.7%가 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. 자녀에 대한 견해는 ‘있는 편이 좋다’ 33.5%, ‘반드시 있어야 한다’ 27.3%로 군민의 60.8%가 자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
- ▶ 가장 필요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으로 ‘안정적인 직장 소득’ 항목이 34.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주택지원’ 18.6%, ‘충분한 양육비 지원’ 13.9% 순으로 나타남
- ▶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‘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’ 항목이 35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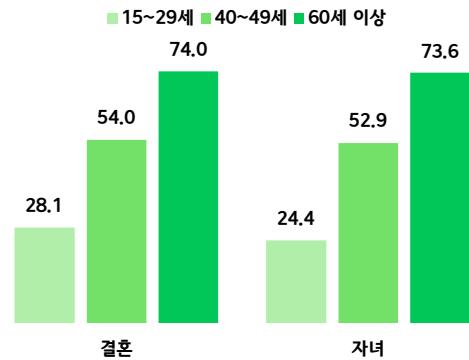
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▶

(단위: %)



◀ 연령별 긍정적 응답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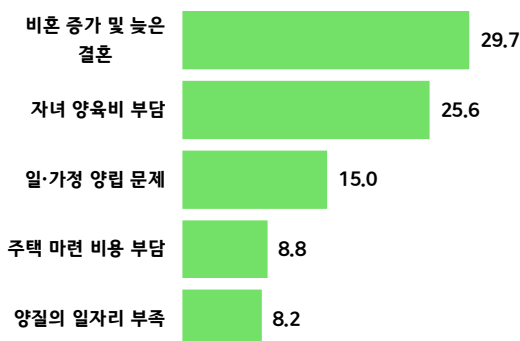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‘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’ 29.7%, ‘자녀 양육비 부담’ 25.6%, ‘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’ 15.0% 순으로 나타남
- ▶ 군민은 가장 필요한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에 ‘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’ (27.5%)이라고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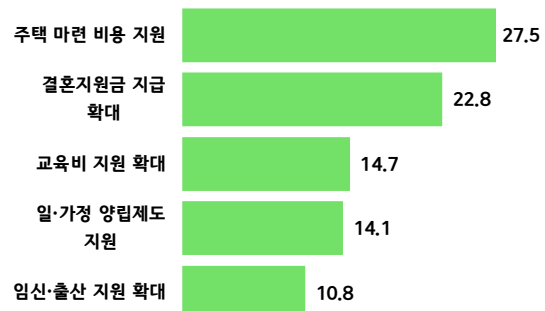
◀ 저출산 원인 ▶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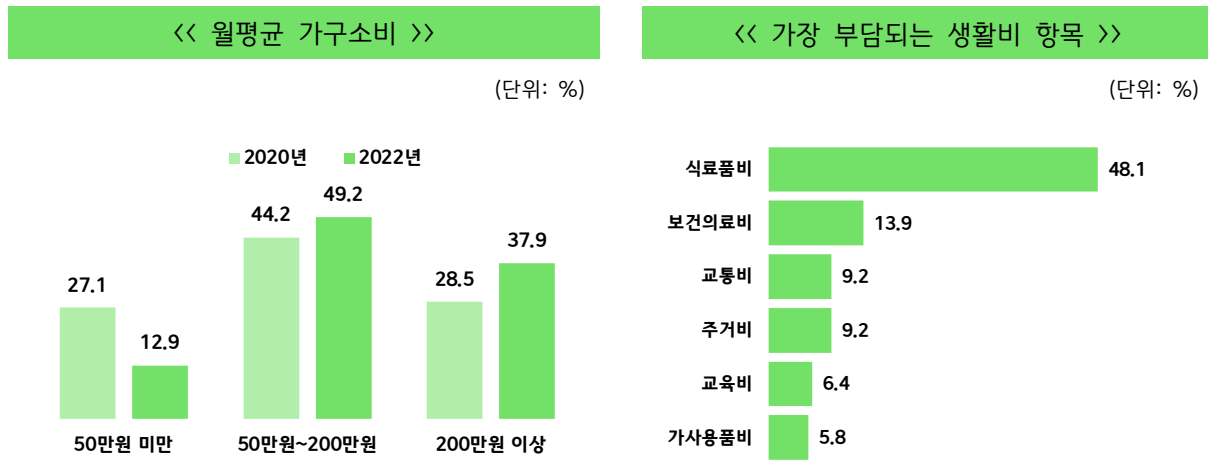


◀ 저출산 해결 방안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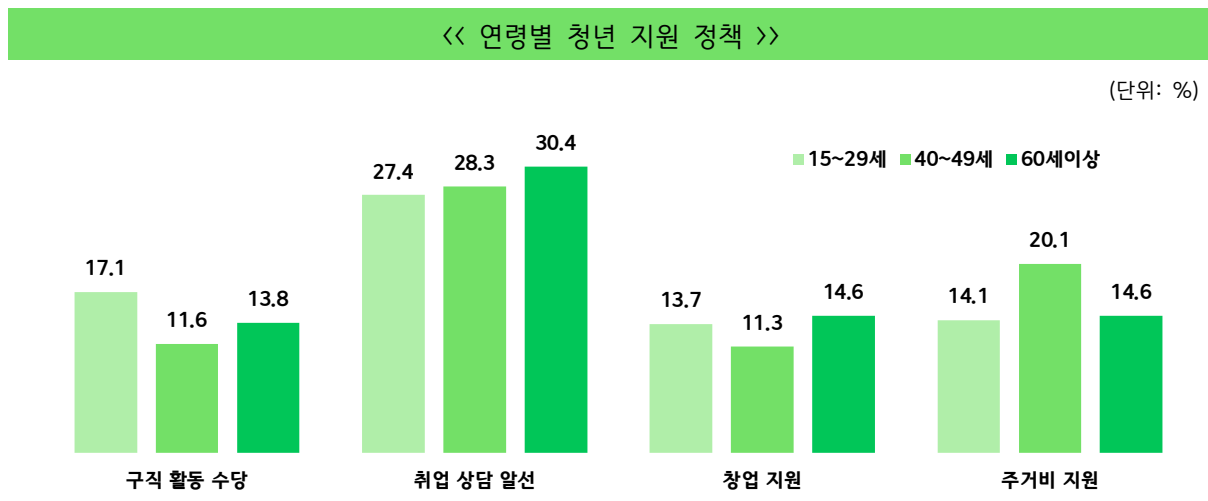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장성군 전체 가구의 26.8%는 월 평균 소비액이 '50~100만원'이라고 응답함. 소비지출액이 '50만원 미만'인 가구의 비율은 12.9%로 2020년(27.1%) 대비 14.2%p 감소했으며, 소비지출액이 '200만원 이상'인 가구의 비율은 37.9%로 2020년(28.5%) 대비 9.4%p 증가함
- ▶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'식료품비' 항목이 48.1%로 가장 많았고 '보건의료비' 13.9%, '주거비'와 '교통비' 항목이 각각 9.2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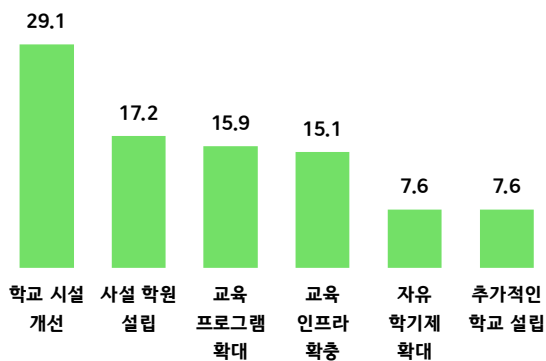
- ▶ 군민이 응답한 가장 필요한 청년 지원 정책은 '취업 상담 알선' 항목이 29.2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'주거비 지원' 16.4%, '창업 지원' 13.8% 순으로 나타남
- ▶ 15~29세의 연령대에서는 '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' 항목이 17.1%로 '취업 상담 알선' (27.4%) 항목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,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'주거비 지원' 항목이 '취업 상담 알선' 항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



- ▶ 군민이 응답한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점은 ‘학교 시설 개선’이 29.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지역 내 다양한 사설 학원의 설립’ 17.2%, ‘교육 프로그램 확대’ 15.9%, ‘교육 인프라 확충’ 15.1% 순으로 나타남
- ▶ 북부권에서는 ‘지역 내 다양한 사설 학원의 설립’ 항목이 24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그 외의 지역권에서는 ‘학교 시설 개선’이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점이라고 응답함. 광주인근권에서는 ‘교육 인프라 확충’ 항목이 23.8%로 ‘학교 시설 개선’ 항목에 이어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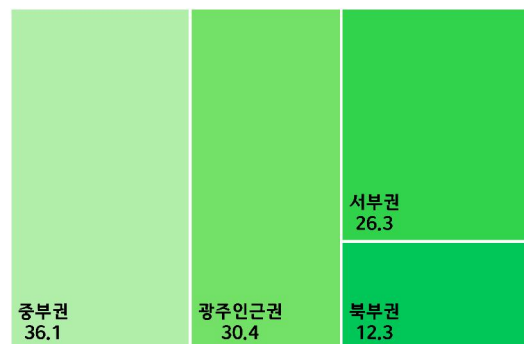
◀◀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▶▶

(단위: %)



◀◀ 학교 시설 개선 항목 응답률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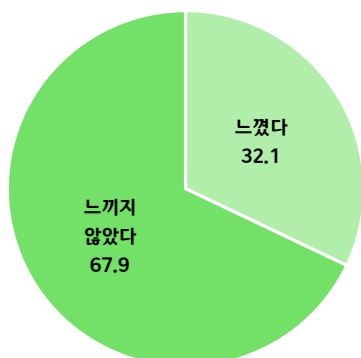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‘느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.1%로 나타남
- ▶ 직장생활을 하는 군민은 66.5%이고, 그중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은 49.7%로 나타남
- ▶ 학교생활을 하는 군민은 5.8%이고, 그중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은 59.1%로 나타남
- ▶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40.0%로 2020년(42.4%) 대비 2.4%p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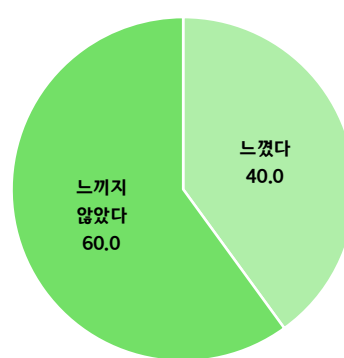
◀◀ 가정생활 스트레스 정도 ▶▶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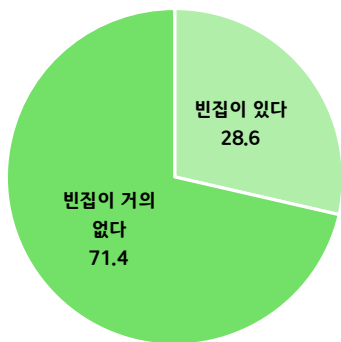
◀◀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▶▶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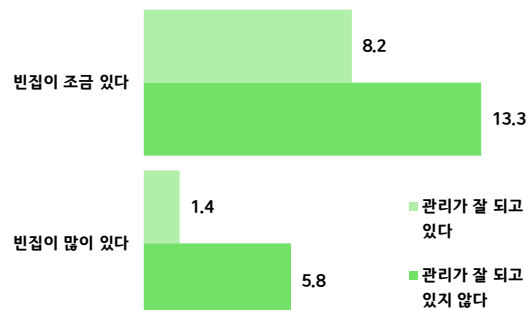


- ▶ ‘빈집이 있다(조금+많이)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28.6%로 나타났으며, ‘빈집이 있으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’고 응답한 군민은 19.1%로 나타남. 직업별 ‘빈집이 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37.9%로 가장 높았고, 사무직 종사자가 15.3%로 가장 낮게 나타남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빈집 활용방안은 ‘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’ 항목이 37.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’ 31.9%, ‘주민 휴식공간, 마을회관 및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’ 17.6% 순으로 나타남

◀◀ 주변 빈집 존재 ▶▶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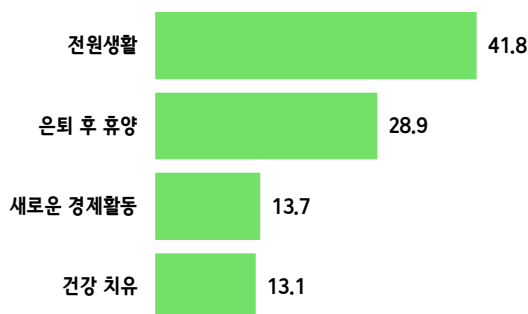


◀◀ 빈집 관리 상태 ▶▶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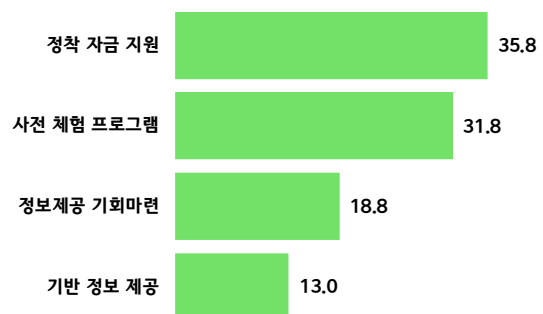

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·귀촌 이유는 ‘전원생활’ 항목이 41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은퇴 후 여가 및 휴양’ 28.9%, ‘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’ 13.7% 순으로 나타남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·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‘귀농어·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 지원’ 항목이 35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귀농어·귀촌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체험 프로그램 제공’ 항목이 31.8%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

◀◀ 귀농어·귀촌 이유 ▶▶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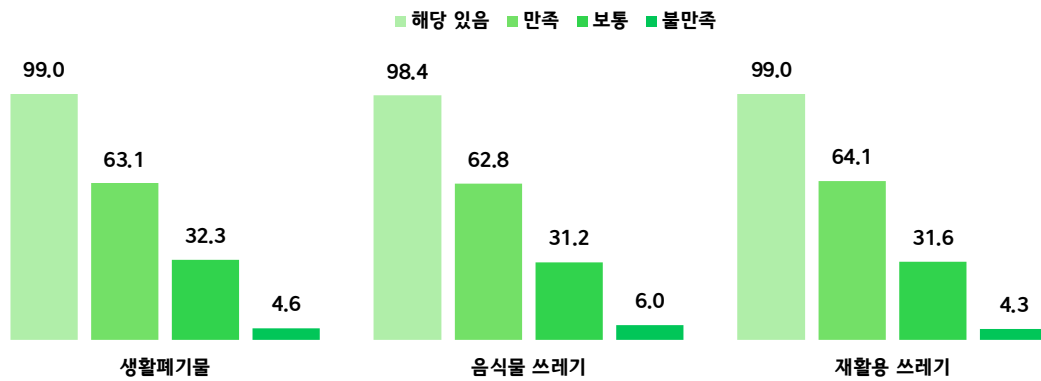
◀◀ 귀농어·귀촌 지원 정책 ▶▶ (단위: %)



- ▶ 군민 중 생활폐기물 처리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3.1%,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2.8%,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4.1%로 나타남
- ▶ 군민이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,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‘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’ 항목이 40.2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‘빨리 가져가지 않아서’ 항목이 각각 32.6%, 34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《<< 쓰레기 처리 만족도 >>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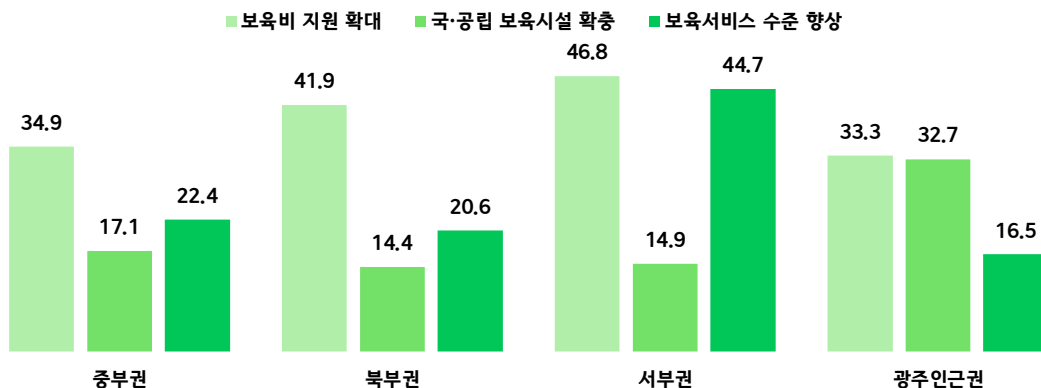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‘보육비 지원 확대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31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▶ 서부권에서는 ‘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’ 항목이 44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보육비 지원 확대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16.8%로 다른 지역권 대비 낮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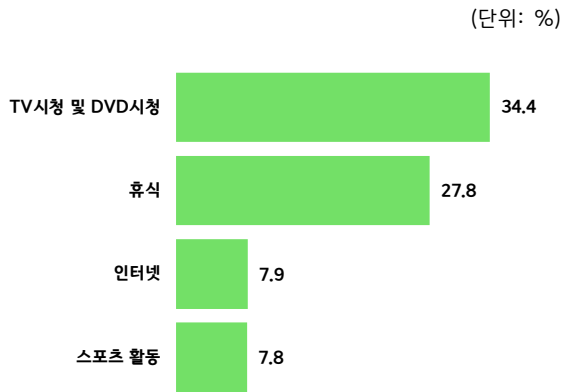
《<< 지역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>>》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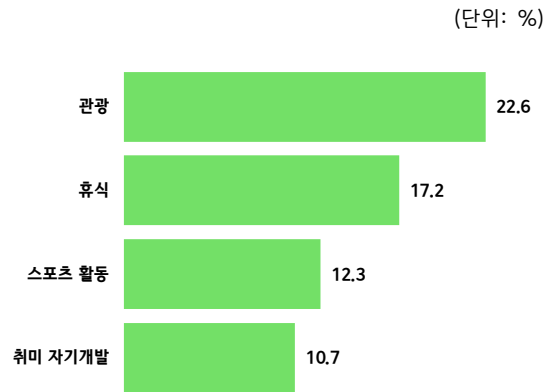


- ▶ 군민이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‘TV 시청 및 DVD 시청’ 항목이 34.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휴식’ 27.8%, ‘컴퓨터 게임, 인터넷 검색’ 7.9% 순으로 나타남
- ▶ 군민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‘관광’ 항목이 22.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휴식’ 17.2%, ‘스포츠 활동’ 12.3% 순으로 나타남

《 주로 하는 여가활동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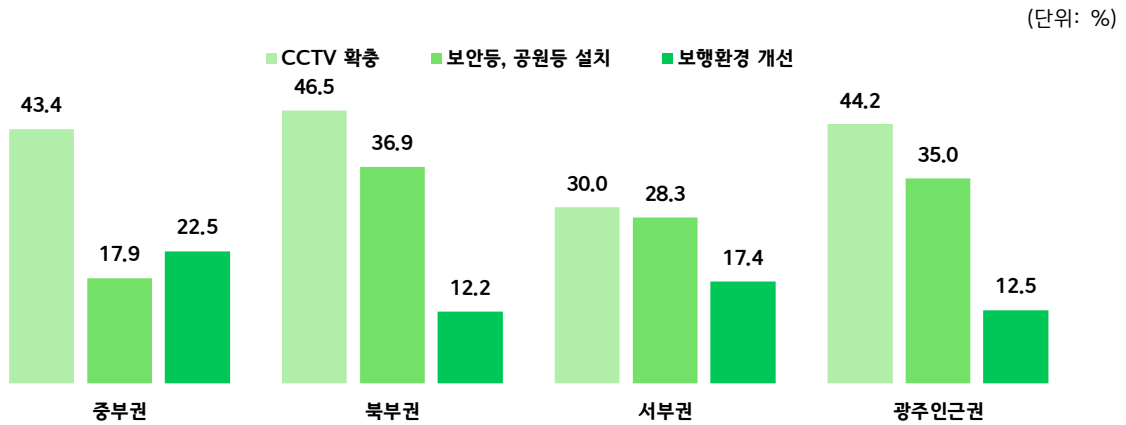


《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》



▶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‘방범용 CCTV 확충’이 40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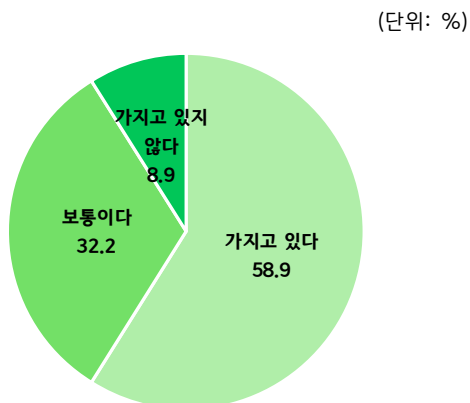
《 지역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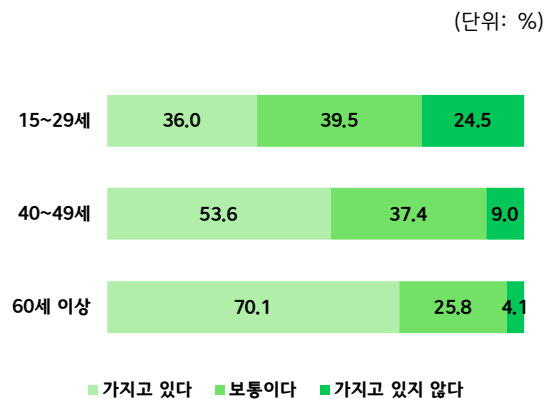
▶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하여 ‘가지고 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58.9%로 가장 높았고, ‘보통이다’ 32.2%, ‘가지고 있지 않다’ 8.9% 순으로 나타남

▶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‘가지고 있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고, ‘가지고 있지 않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

《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》



《 연령별 소속감 및 자부심 》



전라남도 항목 총괄

- ▶ 군민이 응답한 저출산의 원인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 29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또한 군민이 응답한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지원이 27.5%, 결혼지원금 지급이 22.8%로 순으로 나타남. 따라서, **주택 마련 비용, 결혼지원금, 양육비 등 결혼에 대한 경제적 지원**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
- ▶ 군민이 응답한 교육환경 개선점은 학교 시설 개선이 2020년(29.2%)과 2022년(29.1%)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따라서 **낙후된 교육 시설**은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.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점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. **북부권**의 경우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응답률이 12.3%에 불과하며 지역 내 사설 학원 설립 24.7%, 교육 프로그램 확대 24.5%의 응답률을 보임. 따라서 교육 시설 개선보다는 **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개선**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됨
- ▶ 주변에 빈집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고, 빈집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 3명 중 2명은 빈집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고 응답하여 **빈집 관리 문제가 군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** 판단됨. 군민은 빈집 관리 정책으로 철거비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(37.6%)하는 방안과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 임대사업 지원(31.9%)하는 방안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. 따라서 **빈집의 관리 및 손상 정도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소유자에게 철거비를 지원하고, 수리가 가능한 빈집은 새단장하여 활용**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- ▶ 군민 10명 중 6명은 모든 영역의 쓰레기 처리에 만족한다고 응답함. 또한 모든 영역에서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6.0% 이하로 나타남. 즉, 군민은 **쓰레기 처리 환경에 대체로 만족**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그러나 쓰레기의 종류별로 처리 환경 만족도의 차이를 보임. **음식물 쓰레기**의 경우 처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6.0%로 가장 높음.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않는 군민 중 쓰레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40.2%로 가장 높았음. 따라서 **곳곳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치**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
- ▶ 군민은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(40.7%), 보안등,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(26.3%) 순으로 응답함. 즉, **군민은 재난 혹은 안전사고보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** 나타남. 따라서 **CCTV 사각지대 및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파악하여 CCTV와 보안등을 추가 설치**하는 등 범죄 예방 수단의 보완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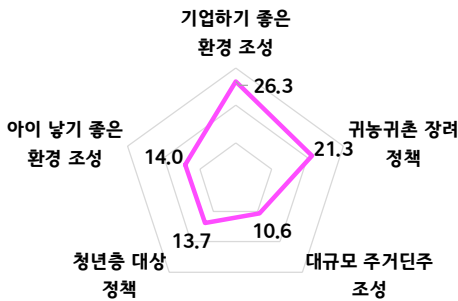
4.

장성 특성 항목
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’ 항목이 26.3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귀농귀촌 장려 정책’ 21.3%, ‘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’ 14.0% 순으로 나타남
- ▶ 항목별의 경우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’ 항목은 15~29세에서 32.9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‘귀농귀촌 장려 정책’ 항목은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24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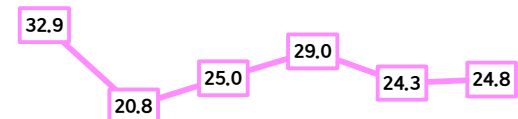
◀ 인구감소 대응정책 ▶

(단위: %)



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▶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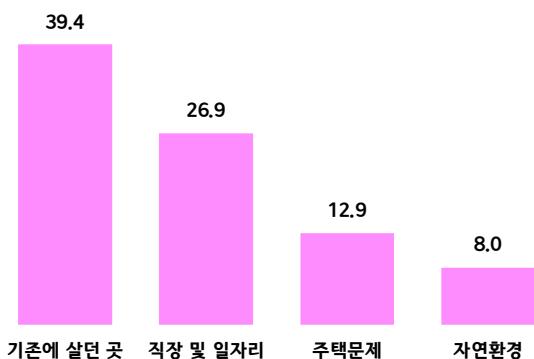


15~29세 30~39세 40~49세 50~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

- ▶ 현 거주지 거주 사유에 대해 ‘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(태어난 곳)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39.4%로 가장 높았고, ‘직장 및 일자리’ 26.9%, ‘주택문제(가격 등)’ 12.9% 순으로 나타남
- ▶ ‘공기·녹지 등 자연환경’ 항목 응답은 북부권에서 25.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‘직장 및 일자리’ 항목의 경우 응답률이 남자 30.6%, 여자 17.0%로 남자가 여자보다 13.6%p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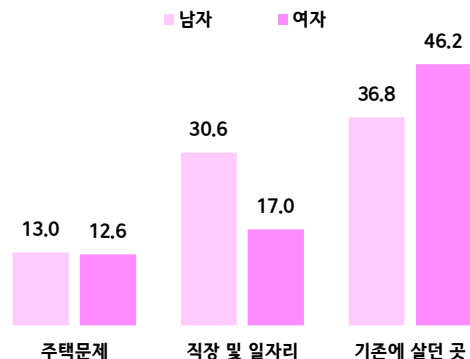
◀ 거주지 거주 사유 ▶

(단위: %)



◀ 성별 거주지 거주 사유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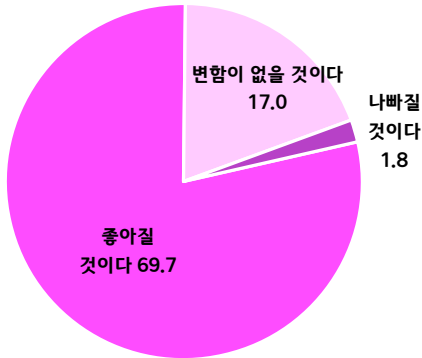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생활여건이 '좋아질 것이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9.7%로 가장 높았고, '변함이 없을 것이다' 17.0%, '잘 모르겠다' 11.4%, '나빠질 것이다' 1.8% 순으로 나타남
- ▶ 생활여건이 '좋아질 것이다'라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인근권이 76.6%로 가장 높았고, 북부권이 56.5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. 또한, 생활여건이 '좋아질 것이다'의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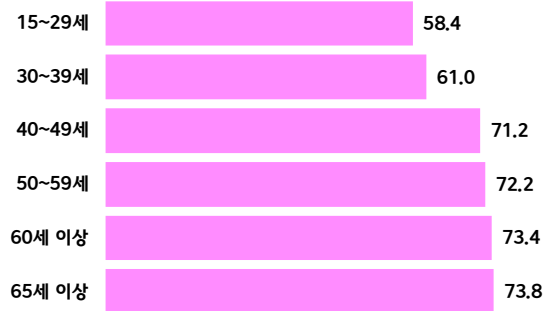
◀◀ 생활여건 변화 기대 ▶▶

(단위: %)



◀◀ 생활여건 긍정적 변화 기대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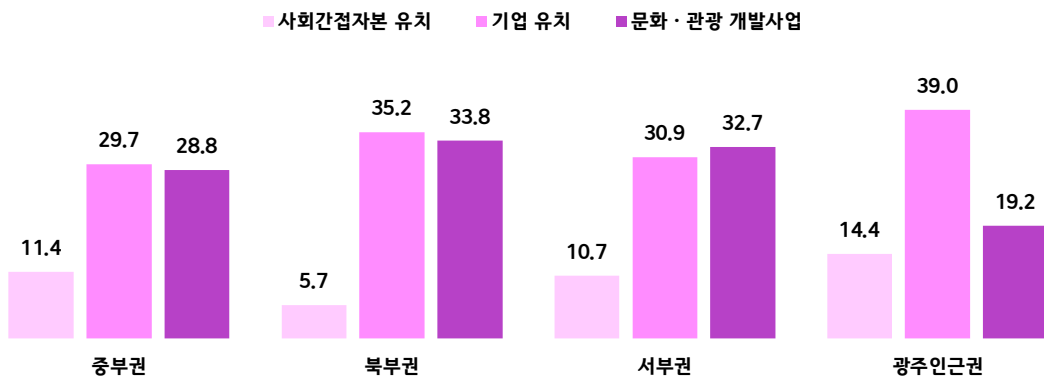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으로 '기업 유치, 일자리 창출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32.4%로 가장 높았고, '문화·관광 개발사업' 28.7%, '도로, 항만, 철도 등 SOC (사회간접자본) 유치' 11.0% 순으로 나타남
- ▶ '문화·관광 개발사업' 항목 응답은 북부권에서 33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광주인근권에서 19.2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. '기업 유치, 일자리 창출' 항목 응답은 광주인근권에서 39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중부권에서 29.7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

◀◀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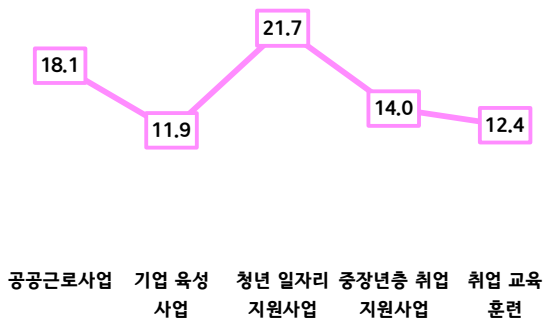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에 ‘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’ 항목이 21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’ 18.1%, ‘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’ 14.0% 순으로 나타남
- ▶ ‘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’ 항목은 15~29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 ‘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’ 항목은 15~29세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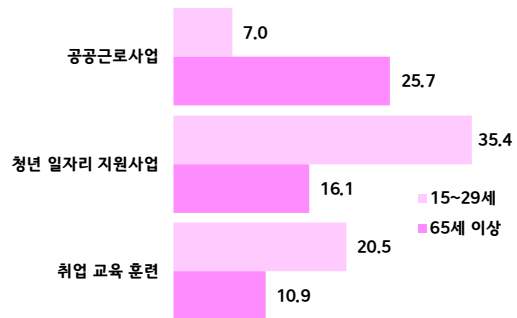
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▶

(단위: %)



◀ 연령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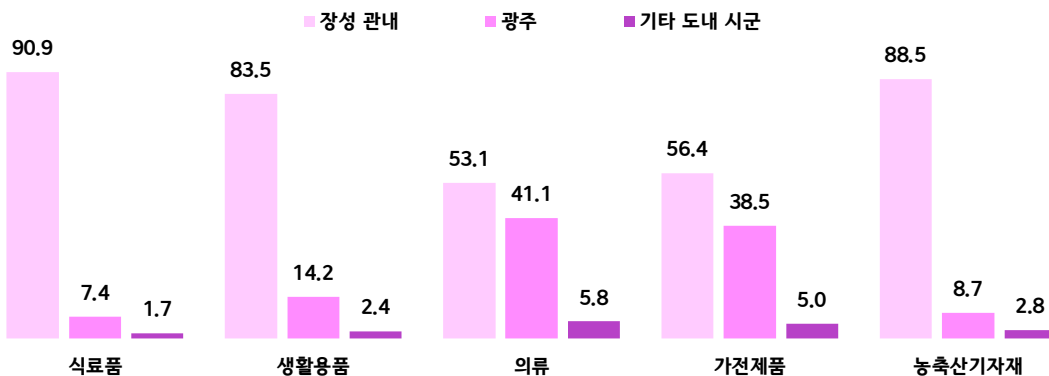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물품을 ‘장성 관내에서 구입한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식료품의 경우 90.9%, 의류 53.1%, 농축산기자재 88.5%로 나타남
- ▶ 식료품을 ‘장성 관내에서 구입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중부권에서 98.6%, 광주인근권에서 78.2%로 나타남. 농축산기자재를 ‘장성 관내에서 구입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중부권에서 98.6%, 광주인근권에서 69.8%로 나타남
- ▶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‘다양한 제품이 있어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48.7%로 가장 높았고, ‘가격이 저렴해서’ 21.5%, ‘지리적으로 가까워서’ 14.4%, ‘제품이 좋아서’ 8.6% 순으로 나타남

◀ 물품구입지역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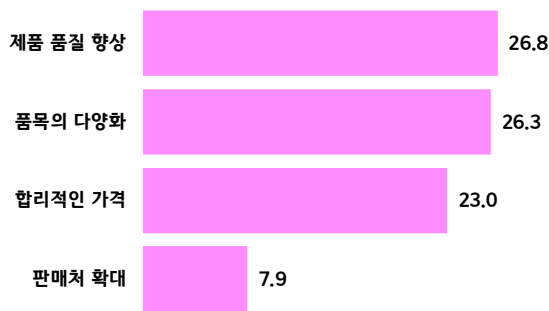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'제품 품질 향상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6.8%로 가장 높았고, '품목의 다양화' 26.3%, '합리적인 상품 가격' 23.0% 순으로 나타남
- ▶ 광주인근권의 경우 '품목의 다양화' 항목이 32.5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북부권의 경우 '제품 품질 향상' 항목이 29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'제품 품질 향상' 항목이 13.0%로 타 지역권(29.7%, 29.5%, 26.9%) 대비 낮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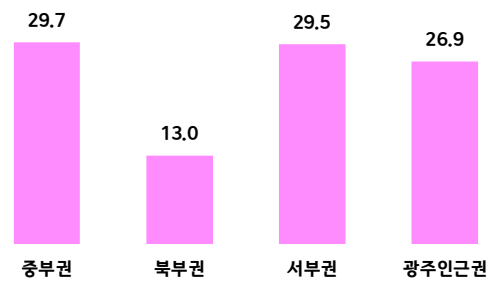
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▶

(단위: %)



◀ 지역별 제품 품질 향상 응답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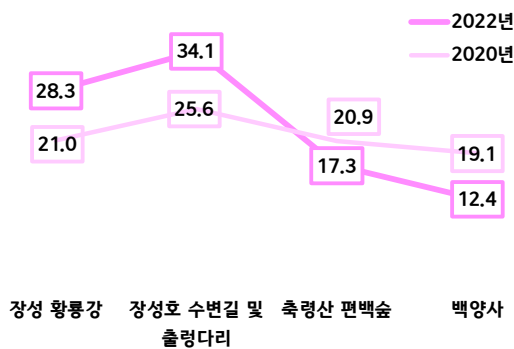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로 '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4.1%로 가장 높았고, '장성 황룡강' 28.3%, '축령산 편백숲' 17.3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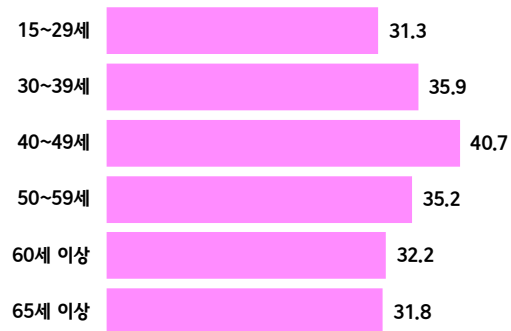
◀ 소개하고 싶은 지역 관광지 ▶

(단위: %)



◀ 연령별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 응답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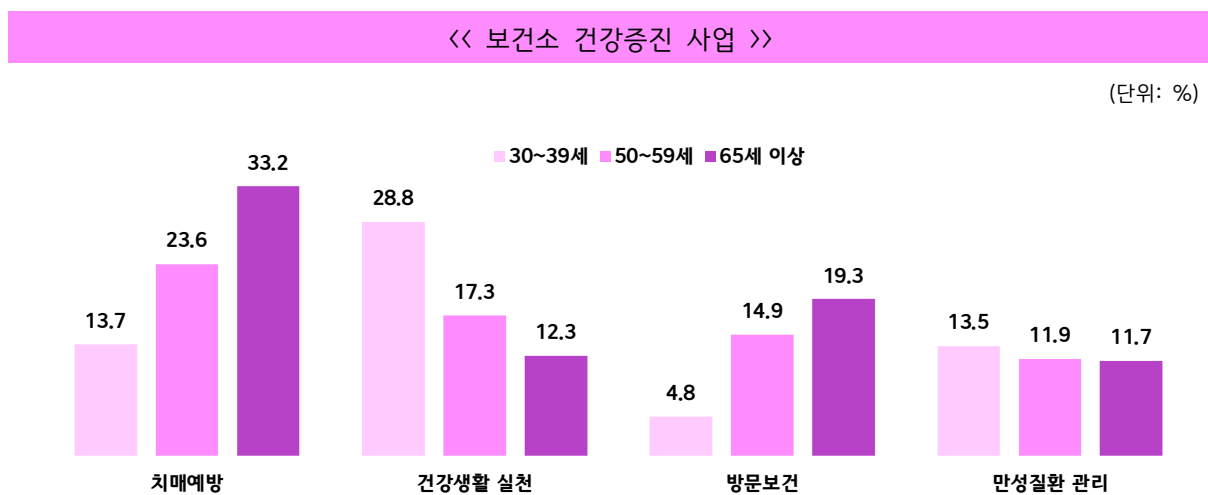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특화작목에 ‘사과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8.7%로 가장 높았고, ‘단감&대봉’ 28.2%, ‘포도’ 16.4% 순으로 나타남
- ▶ 특화작목 품목 추천 이유는 ‘맛과 품질이 우수하므로’ 항목이 46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장성군을 대표하는 품목이므로’ 24.4%, ‘농가소득이 큰 품목이므로’ 20.4%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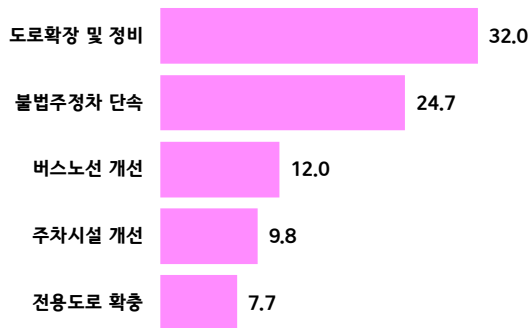
- ▶ 필요한 보건소 사업에 ‘치매예방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4.0%로 가장 높았고, ‘건강생활 실천(절주, 영양, 운동, 비만)’ 17.9%, ‘방문보건(고혈압, 당뇨 등)’ 13.7% 순으로 나타남
- ▶ ‘치매예방’ 항목은 30~39세에서 13.7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 ‘건강생활 실천’ 항목은 30~39세에서 28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

- ▶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‘도로 확장 및 정비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.0%로 가장 높았고, ‘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’ 24.7%, ‘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’ 12.0% 순으로 나타남
- ▶ 북부권의 경우 ‘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’ 항목이 30.6%로 타 지역권(7.1%, 10.9%, 9.3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’ 항목이 7.1%로 타 지역권(30.9%, 27.3%, 20.7%) 대비 낮은 비율을 보임. 서부권의 경우 ‘운전자 및 시민 교통질서 의식 개선’ 항목이 15.4%로 타 지역권(3.2%, 1.5%, 7.6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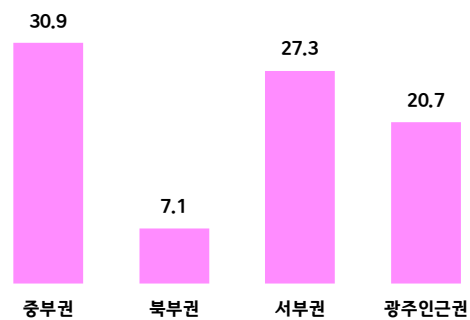
<<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>>

(단위: %)



<< 지역별 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 응답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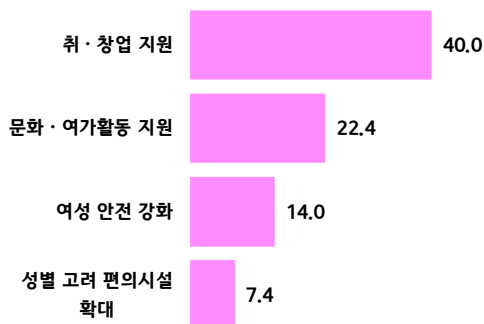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장성군에 필요한 여성정책에 ‘여성의 취·창업 지원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.0%로 가장 높았고, ‘여성 문화·여가활동 지원’ 22.4%, ‘여성 안전 강화’ 14.0% 순으로 나타남
- ▶ 북부권의 경우 ‘여성의 취·창업 지원’ 항목이 60.3%로 타 지역권(32.4%, 48.4%, 29.1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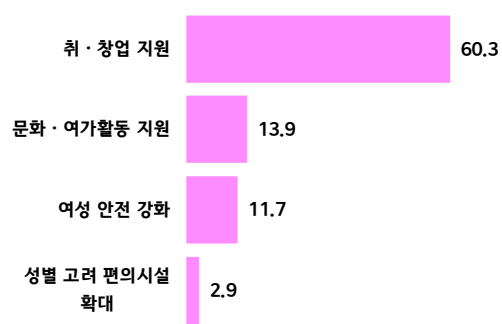
<< 여성정책 응답 >>

(단위: %)



<< 북부권 여성정책 응답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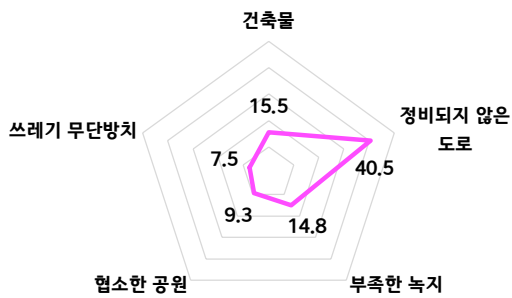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정비가 필요한 도시경관에 ‘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.5%로 가장 높았고, ‘건축물’ 15.5%, ‘부족한 가로수와 녹지’ 14.8% 순으로 나타남
- ▶ 광주인근권의 경우 ‘부족한 가로수와 녹지’ 항목이 25.3%로 타 지역권(14.1%, 9.3%, 11.6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. 북부권의 경우 ‘건축물’ 항목이 21.4%로 타 지역권(14.7%, 14.3%, 14.5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유사하게 ‘쓰레기 무단방치’ 항목도 13.5%로 타 지역권(7.6%, 6.1%, 4.3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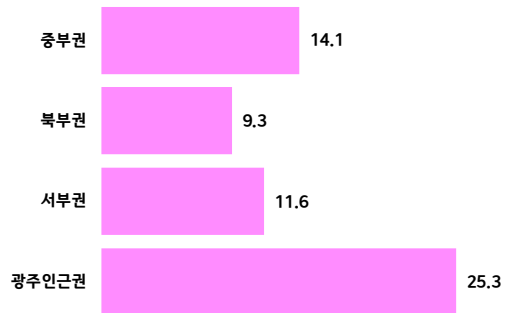
◀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도시경관 ▶

(단위: %)



◀ 지역별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 응답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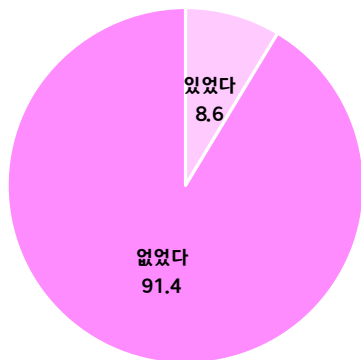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▶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‘있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8.6%로 나타남.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군민 중 ‘관내’에서 수강한 군민은 97.2%, ‘관외’에서 수강한 군민은 2.8%로 나타남
- ▶ 군민이 수강한 프로그램은 ‘문화·교양’ 항목이 36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‘직업훈련 교육’ 26.3%, ‘스마트폰 활용’ 22.7% ‘댄스스포츠 등 신체활동’ 22.6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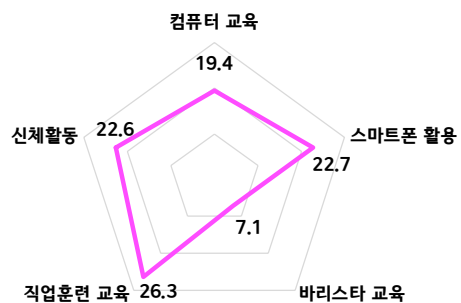
◀ 평생교육 수강경험 ▶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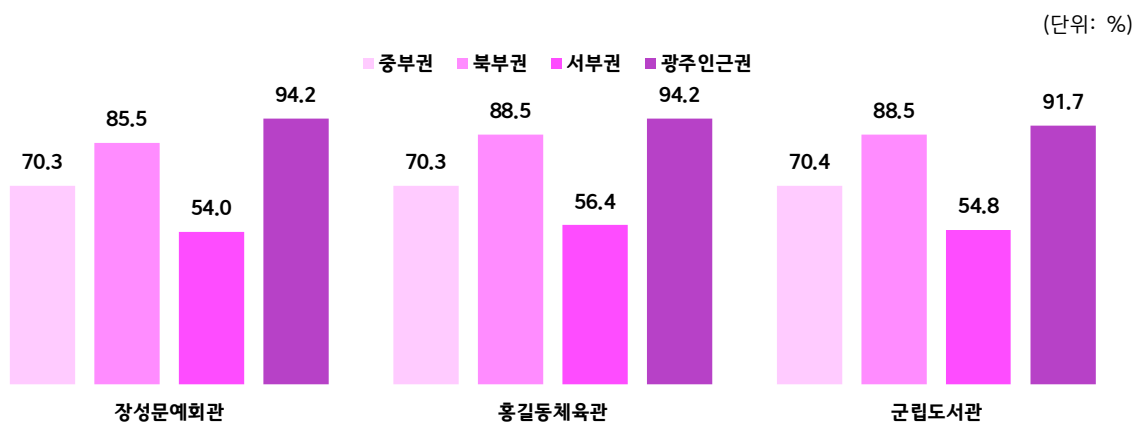
◀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▶

(단위: %)



- ▶ 장성문예회관 이용에 '만족한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69.0%로 나타났으며, 홍길동체육관 이용에 '만족한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69.9%, 군립도서관 이용에 '만족한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69.4%로 나타남. 문화체육시설 만족도의 모든 문항에서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은 중부권과 서부권에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
- ▶ 군민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장성문예회관, 홍길동체육관, 군립도서관 모두 '시간이 없어서' 항목이 각각 49.5%, 48.4%, 48.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'거리가 멀어서' 항목은 세 시설에서 각각 34.9%, 35.4%, 35.2%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

« 지역별 문화체육시설 만족도(만족) »



장성 특성 항목 총괄

- ▶ 군민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(26.3%)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. 특히 젊은 연령대일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이므로, 청년층 인구 유입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임. 청년층 인구의 유입을 통해 **인구감소 대응과 동시에 지역 고령화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** 따라서 **본사 혹은 공장이 장성군 행정구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조금 지급**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여야 함
- ▶ 군민은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으로 **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(32.4%)**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. 해당 정책은 위의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매우 유사함. 따라서 해당 정책은 지역발전과 동시에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,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으로 판단됨. 더불어 **문화·관광 개발사업 (28.7%)** 또한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▶ 군민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품 품질 향상(26.8%), 품목의 다양화(26.3%), 합리적인 상품가격(23.0%) 순으로 응답함. 군민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 고객이므로,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**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**해야 함. 따라서 지역 특산물의 이점을 활용하여 **다양한 품목을 신선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**한다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▶ 군민은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로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(34.1%), 장성 황룡강(28.3%), 축령산 편백숲(17.3%) 순으로 응답함. 해당 관광지들은 군민이 선호하는 관광지로서 군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관광지라고 판단할 수 있음. 군민이 응답한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, 장기적으로 관광도시 장성군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. 따라서 **주차장 등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과 주변 상권을 정비하여 관광지 접근성을 증대**하고, 해당 관광지를 **SNS 등의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**한다면 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▶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8.6%로, 평생교육이 경험이 있는 군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 군민이 수강한 프로그램은 문화·교양이 36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그러나 군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교육 26.3%, 스마트폰 활용 22.7%로 **군민이 수강한 프로그램과 차이**를 보임. 따라서 **군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의를 개설**하고, **적극적으로 홍보**한다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과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 군민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